

『금강삼매경』의 존삼수일설  
-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

김영일\*

• 목 차 •

- I. 서언
- II. 경전에서의 ‘존삼수일설’
- III. 수행의 순서
  - 1. 존삼해탈(存三解脫)
  - 2. 수일심여(守一心如)
  - 3. 입여래선(入如來禪)
- IV. 결어

---

\* 동국대 강사.

© 『大覺思想』 제28집 (2017년 12월), pp.299-326.

## 한글요약

본고는 『금강삼매경』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인 ‘존삼수일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입실제품」에 등장하는 존삼수일설은 모두 ‘존삼해탈’, ‘수일심여’, ‘입여래선’의 3가지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입(理入)이라고 하는 『금강삼매경』의 수행단계에 해당되는데, 존삼해탈은 십신에서 십주까지, 수일심여는 십행, 입여래선은 십회향에 각각 배당되는 정교한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존삼해탈(存三解脫)’의 체(體)인 ‘세 가지 해탈[三解脫]’이란,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이라는 세 가지 지혜를 닦아서, 그 결과 허공해탈(虛空解脫), 금강해탈(金剛解脫), 반야해탈(般若解脫)이라는 세 가지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존삼해탈’의 용(用)인 ‘간직한다[存]’는 것은, 선정에서 나와 세상일을 마주 대했을 때에도 선정에서 닦은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수일심여(守一心如)’의 체(體)인 ‘한 마음의 진여[一心如]’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법의 2가지 법 중에서 심생멸문이 아닌 심진여문(心眞如門)을 가리킨다. 또한, ‘수일심여’의 용(用)인 ‘지킨다[守]’란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거나 선정에서 나오거나 할 것 없이 수일심여의 체인 ‘심진여문’ 혹은 ‘중도(中道)’를 가슴에 항상 담아두고 지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입여래선(入如來禪)’의 체(體)인 ‘이관삼매(理觀三昧)’란 무엇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분별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입여래선’ 용(用)인 ‘관(觀)’이란 선정에 들어가 진제를 관찰하여 참모습을 관조하더라도 중도라는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고, 선정 밖으로 나와 속제를 관찰하여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얻거나 잃음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

## 주제어

『금강삼매경』, 『금강삼매경론』, 원효, 존삼수일설, 존삼, 존삼해탈, 수일, 수일심여, 입여래선, 이관삼매

## I. 서언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인데, 이 종단은 원래 중국 선종의 직계라고 할 수 있다. 신라후기와 고려 초기에 많은 스님들이 중국 선종의 6조 혜능(慧能, 638~713)의 선법을 체득하고 돌아와 구산선문을 세운 것이 오늘날 조계종의 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불교는 중국불교, 그 중에서도 중국 선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수입한 혜능의 선법과 무관하게 한국에는 이미 독자적인 선법이 있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서, 혜능의 선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한국에서 독자적인 선법이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을 해설한 것인데, 이 경전이 어디에서 성립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성립설과<sup>1)</sup> 한국성립설이<sup>2)</sup> 논의 중에 있다.

이처럼 한국에는 중국 혜능의 선법과 별도로 원효의 선법이 존재하였

1) ① 미즈노 고젠은 『금강삼매경』에 玄奘(602-664) 譯 이후에나 등장하는 용어들이 나타난다는 등을 논거로 650년 이후에 등장한 偽經이라고 한다. 水野弘元, 「菩提達摩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 『駒澤大學研究紀要』13, 1955, pp.56-57.

② Walter, Liebenthal, 'Notes on the 'Vajrasamadhi'', 通報 Toung Pao Vol.42, 1956. ③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禪文化研究所, 1967. ④ 석길암은 중국 삼계교를 『금강삼매경』의 편찬 집단으로 추정한다. 석길암, 『『금강삼매경』의 성립과 성립과 유통에 한 재고』, 『보조사상』31, 2009, pp.79-127.

2) ① 木村宣彰은 당시 다양한 불교사상을 佛說의 권위 아래 회통시키고자 大安이나 元曉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한다. 木村宣彰, 「金剛三昧經の眞偽問題」, 『佛敎史學研究』18-2, 1976. ② 金煥泰는 大安, 惠空, 蛇福 등이 찬술하였다고 한다. 김영태,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2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8, pp.11-37. ③ Buswell은 신라의 法朗이 찬술자라고 한다. Buswell, Robert. E.,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89, p.174. ④ 南東信, 「新羅 中代佛敎의 성립에 관한 연구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文化』2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pp.113-142.

던 것이다. 이 원효의 선법, 즉 『금강삼매경』에 담겨있는 선사상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대체로 혜능 이전의 초기선종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다. 초조 달마(達磨)의 이입사행설(理入四行說)과 『금강삼매경』의 이입행입설(理入行入說),<sup>3)</sup> 4조인 도신(道信, 580~651)의 수일불이설(守一不移說)과 『금강삼매경』의 존삼수일설(存三守一說)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본고는 『금강삼매경』의 존삼수일설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서(禪書)인 『금강삼매경』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존삼수일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장차 초기선종의 여러 사상들과 비교하는데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비교대상으로는 4조 도신의 수일불이설과<sup>4)</sup> 5조 홍인(弘忍, 601~674)의 수심설(守心說)<sup>5)</sup>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원효의 『금강

3) 달마선과 『금강삼매경』에서는 모두 이입(理入)을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달마선과 『금강삼매경』의 선후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미즈노 고젠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의 영향을 받아 『금강삼매경』의 이입행입설이 창안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水野弘元, 「菩提達磨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 『駒澤大學研究紀要』13, 1955. 이와 달리, 야나기다 세이잔은 『금강삼매경』의 이입행입설의 영향으로 달마의 이입사행론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柳田聖山, 「金剛三昧經の研究」, 『백련불교논집』3, 1993.

4) 도신의 선사상은 『入道安心要方便法門』이라는 저술에 담겨있는데 이 책은 현재 소실되었다. 둔황에서 발굴된 『楞伽師資記』에 남아있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그의 법문은 『문수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염불과 좌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염불과 좌선으로부터 '오문선요(五門禪要)'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마음의 본체를 아는 것이고[知心體], 둘째,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며[知心用], 셋째, 언제나 깨달아 머물지 않는 것이고[常覺不停], 넷째, 항상 몸이 공적함을 관하는 것이며[常觀身空寂], 다섯째, 하나를 지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守一不移]. 여기에서 도신은 다섯째 수일불이에 대해서 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진무, 「道信禪師의 禪思想과 그 意義」, 『불교학보』42, pp.141-170, 2005.

5) 선종 5조 홍인은 수심(守心)을 수진심(守眞心), 수아진심(守我眞心), 수본정심(守本淨心), 수본진심(守本眞心)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4조 도신의 수일불이설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매경론』도 두루 살펴보았다.<sup>6)</sup>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논자에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본고의 주제인 ‘존삼수일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sup>7)</sup> 경전에 쓰여진 한글자 한글자를 음미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초석을 놓고자 한다.

## II. 경전에서의 ‘존삼수일설’

『금강삼매경』의 존삼수일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설이 등장하는 『금강삼매경』의 해당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설은 경의 「입실제품(入實際品)」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부처님과 대력보살이 모두 5차례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경의 해당내용을 차근차근 감상해 보자. 아래에는 제1대화 내용이다.

- ①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실제(實際)의 각의 이익은 출입이 없는 것인데, 어떤 법의 마음으로 실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제의 법은 한계가 없으니,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실제에 들어 갈 수 있다.”<sup>8)</sup>

인용문에서, 대력보살은 부처님께 이 품의 제목인 ‘실제에 들어가는[入

6)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명대 선종의 입장에서 주석된 원정의 『금강삼매경주해』와 청대 천태종 입장에서 주석된 적천의 『금강삼매경통종기』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원효의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7) 본고의 주제인 ‘존삼수일설’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범위를 넓혀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번역서, 해설서, 박사학위논문은 찾아볼 수 있다. ①은정희·송진현 역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4, ②이정희, 「원효의 실천수행관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③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4, ④이병학,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 서울: 해안, 2017.

8) 『금강삼매경』(大正藏9, 370상), “大力菩薩言 實際覺利 無有出入 何等法心 得入實際 佛言 實際之法 法無有際 無際之心 則入實際.”

實際’ 방법을 묻고 있다. 이에 부처님께서서는 ‘한계가 없는 마음[無際之心]’으로 실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신다.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진리의 세계인 ‘실제’의 범은 이러한 한계가 없다. 이처럼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실제에 들어간다고 대답하신 것이다. 아래는 제2대화 내용이다.

①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한정 없는 마음이 가진 지혜, 그 지혜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자재(自在)하며, 자재한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범부와 같이 유약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은 그 마음에 혈떡거림이 많으니, 무슨 법으로 다스려야 굳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저 마음이 혈떡거리는 사람은 안팎의 번뇌와 거기에 따르는 번뇌가 흘러 내려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한다. 그리하여, 하늘의 큰 바람이 북을 치듯이 불어와 물결을 일으키면, 큰 용이 크게 놀란다. 이 크게 놀라는 마음 때문에 혈떡거리는 일이 많게 되는 것이다. 보살아,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간직하고[存三]’ ‘한 가지를 지키며[守一]’ ‘여래선에 들게 하여라[入如來禪].’ 그러면, 그 선정 때문에 마음에 혈떡거림이 없어질 것이다.”<sup>9)</sup>

인용문에서, 대력보살은 유약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이에 부처님께서서는 하늘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를 간직하고,’ 큰 용을 조복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지키며’ 혈떡거림을 대치할 수 있는 ‘여래선에 들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다. 아래는 제3대화 내용이다.

9) 위의 책, 370상, “大力菩薩言 無際心智 其智無涯 無涯之心 心得自在 自在之智 得入實際 如彼凡夫 軟心衆生 其心多喘 以何法御 令得堅心 得入實際 佛言 菩薩 彼心喘者 以內外使 隨使流注 滴瀝成海 天大風鼓浪 大龍驚駭 驚駭之心 故令多喘 菩薩 令彼衆生 存三守一 入如來禪 以禪定故 心則無喘.”

①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무엇을 가리켜 ‘세 가지를 간직하고[存三]’ ‘한 가지를 지키며[守一]’ ‘여래선에 드는[入如來禪]’ 것이라고 합니까?”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를 간직한다’는 것은 3해탈(三解脫)을 있게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한 마음의 진여[一心如]를 지킨다는 말이며, ‘여래선에 든다’는 것은 이치로써 마음의 진여를 관찰하는 것이다[理觀心如].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곧 실체에 들어가게 된다.”<sup>10)</sup>

인용문에서, 대력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삼(存三), 수일(守一), 입여래선(入如來禪)의 뜻을 묻고 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존삼이란 ‘세 가지 해탈을 있게 한다[存三解脫]’는 것이고, 수일은 ‘한 마음이 가진 진여다운 성품을 지킨다[守一心如]’는 것이며, 입여래선이란 ‘이치로써 마음이 가진 진여다운 성품을 관찰하는 것이다[理觀心如]’라고 대답하신다. 아래는 제4대화 내용이다.

①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세 가지 해탈의 법이란 어떤 일들을 말하고, 이치로 관찰하는 삼매란 무슨 법으로 들어갑니까?”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해탈이란 허공해탈(虛空解脫), 금강해탈(金剛解脫), 반야해탈(般若解脫)을 말한다. 또한, 이치로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치와 같이 맑아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sup>11)</sup>

인용문에서, 대력보살은 ‘세 가지 해탈의 법[三解脫法]’과 ‘이치로 관찰하는 삼매[理觀三昧]’를 묻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존삼과 입여래선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세 가지 해탈이란 허공

10) 위의 책, 370상, “大力菩薩言 何謂存三守一 入如來禪 佛言 存三者 存三解脫 守一者 守一心如 入如來禪者 理觀心如 入如是地 卽入實際.”

11) 위의 책, 370상-중, “大力菩薩言 三解脫法 是何等事 理觀三昧 從何法入 佛言 三解脫者 虛空解脫 金剛解脫 般若解脫 理觀心者 心如理淨 無可不心.”

12) 위의 제3대화에서 부처님께서 ‘존삼이란 세 가지 해탈을 있게 한다[存三者 存

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을 말하며, 이치로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치와 같이 맑아져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입실제하는 방법으로 존삼, 수일, 입여래선의 3가지를 말씀하였는데, 어찌하여 이곳에서는 존삼과 입여래선만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원효가 제3대화에서 수일은 심진여문에 대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만 자세히 해석한 것으로 볼 때, 그와는 성격이 다른 존삼과 입여래선에 대한 것만을 묶어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제5대화 내용이다.

①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무엇을 간직하는[存] 작용이라고 하고, 무엇을 관찰한다[觀]고 합니까?”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현상[事]이 둘이 아님을 일컬어 간직하는[存] 작용이라고 한다. (또한, 안의 행위[內行]와 밖의 행위[外行]에 출입하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의 상[相]에 머물리지 않고, 마음에 득실이 없다. 그리하여,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경지[一不二地]에서 맑은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觀]고 한다.”<sup>13)</sup>

인용문에서, 대력보살은 다시 존삼과 입여래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다만, 위의 제4 대화와 다른 점은 존삼의 작용인 ‘간직하다[存]’과 입여래선의 작용인 ‘관찰하다[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간직한다’는 것은 마음과 일[事]이 둘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관찰한다’는 것은 내행과 외행에 출입하는 것이 같으며,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득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三解脫]라고 말씀하였기에, 여기 제4대화에서 대력보살이 ‘존삼’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대화에서 부처님께서 ‘입여래선이란 이치로써 마음이 가진 진여다운 성품을 관찰하는 것이다[入如來禪者 理觀心如]’라고 말씀하였기에, 여기에서 ‘입여래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금강삼매경』, 앞의 책, 370중, “大力菩薩言 云何存用 云何觀之 佛言 心事不二 是名存用 內行外行 出入不二 不住一相 心無得失 一不二地 淨心流入 是名觀之.”

여기에서, 이미 제4대화에서 존삼과 입여래선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어찌하여 여기에서 다시 논의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4 대화와 제5 대화의 초점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4 대화에서는 ‘세 가지 해탈의 법’과 ‘이치로 관찰하는 삼매’와 같이 ‘체(體)’의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여기에서는 ‘간직하다’와 ‘관찰하다’와 같이 ‘용(用)’의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이상, 『금강삼매경』에서 존삼수일설이 등장한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실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존삼’과 ‘수일’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여래선’이라는 수행방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5)</sup> 제2 대화에서 그 이름이 거명된 이래로 제3 대화에서는 그 뜻이 등장하고, 제4 대화에서는 그 체(體)에 대해서, 제5 대화에서는 그

1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사상사에서 체(體)와 용(用)의 논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화가 진행되면서 이 논리는 큰 힘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금강삼매경』이 인도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논자는 『금강삼매경』에도 이 체용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 ‘체용의 논리’를 서양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학자는 1930년대에 중국 베이징대학교의 탕용탄(湯用彤)인데, 오늘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의 박성배는 이 논리를 ‘몸(體, Mom)과 몸짓(用, Momjit)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박성배, 『몸과 몸짓의 논리』, 서울: 민음사, 2007.

15) 『금강삼매경』에서 ‘존삼’, ‘수일’과 별도로 ‘입여래선’이 제3의 관행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금강삼매경론』의 이어진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반의 집에 들어갔으나 마음이 삼계에서 일어난다’고 한 것은 세 가지 해탈이 세 가지를 간직하는 작용이다. [존삼] … ‘여래의 옷을 입고서 범공의 처소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곧 한 마음의 진여를 지키는 관행이다. [수일] … ‘보리의 자리에 앉아 정각의 여일한 경지에 오른다’고 한 것은 여래선의 이관의 마음이다. [입여래선] … 세 가지 관행을 닦기 때문에 지혜의 공덕이 또한 갖추어진다.” 『金剛三昧經論』 (韓佛全1, 647중-하), “入涅槃宅 心起三界者 是三解脫存三之用 三界空寂 名涅槃宅 安心栖託之淨處故 三解脫觀 入三界空 而不取證 還起俗心 普化三界故 言心起三界 起三界心而不染着 即是存心 着如來衣 入法空處 即是守一心如之觀 謂涉三界普化之時 着忍辱衣 而不疲倦 還入法空守一心如 如法華經言 柔和忍辱衣故 坐菩提座 登正覺一地者 是如來禪 理觀之心 謂坐法空 進修方便 得登初地正覺眞觀 如法華經言 諸法空爲座故 如是三位 皆觀二空人我法我二執 伏滅故 言心超二我超二我故 斷德具足 修三觀故.”

용(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3가지 수행방법에 순서가 있다는 점이다. 원효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수행방법은 모두 이입(理入)이라는 『금강삼매경』에 등장하는 독특한 수행단계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52계위설에 의하면 십신부터 십회향까지의 40계위에 해당한다.<sup>16)</sup> 즉, 존삼(存三)은 십신부터 십주까지 해당하고,<sup>17)</sup> 수일(守一)은 십행에 해당하며,<sup>18)</sup> 입여래선(入如來禪)은 십회향에 각각 해당한다.<sup>19)</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바탕으로 해서, 『금강삼매경』 「입실제품」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입실제하는 구체적인 3가지 수행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보는 순서는, 존삼, 수일, 입여래선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순서로 살펴보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행의 52계위설의 순서에 따랐기 때문이다.

- 
- 16)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제2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면서, 입실제를 위한 3가지 수행방법은 모두 초지 이전의 4계위인 이입(理入)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위의 책, 645상, “此下大分 第四入之方便 入方便者 位在地前四位 理入門內方便觀也.”
- 17)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제5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존삼’의 수행은 십신의 지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십주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의 책, 646하, “... 如是乃名存三之用也 是觀如修在十信位 存用得成 在十住位 如本業經十住位中 立此觀故.”
- 18)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제3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수일’의 수행은 십주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의 책, 645하, “案云 三時不失 中道一味 卽是此觀守一之用 此觀 在於十行位也.”
- 19) 원효는 ‘입여래선’의 수행이 십회향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강삼매경』의 제5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본업경』의 십회향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 점을 보거나, 경전의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경지[一不一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초지를 거론한 것을 볼 때, 원효가 ‘입여래선’의 수행이 십회향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의 책, 646하-647상, “如本業經十向中言 十以自在慧化一切衆生 所謂中道第一義諦 般若處中而觀 達一切法而無二 其慧轉轉入聖地 故名相似第一義諦觀 而非眞中道第一義諦觀 乃至廣說故 ... 言一不一地者 初地之異名 所以然者 初地卽是十地 一時頓入十重法界故 十地卽是初地 直以遍滿爲初門入故 良由十地卽初地 故名一 初地卽十地 故不一 是故名爲一不一地.”

### Ⅲ. 수행의 순서

#### 1. 존삼해탈(存三解脫)

‘존삼해탈’이란 ‘존삼’을 갖추어서 한 말이다. 『금강삼매경』에서는 존삼에 대한 설명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제4대화에서는 ‘체(體)’의 측면에서 ‘세 가지 해탈의 법(三解脫法)’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5대화에서는 ‘용(用)’의 측면에서 ‘존(存)의 작용’에 논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경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해탈법’의 내용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들어보자.

여섯째는, 모든 부처님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니, 이른바 여덟 가지 해탈관이다. ㉠문혜(聞慧)는 안의 가상(假相)과 밖의 가상(假相)의 두 가지 상(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득하니, 이것이 첫째 해탈이다. ㉡사혜(思慧)는 안으로는 오음법(五陰法)과 밖으로는 일체법(一切法)을 얻을 수 없음을 증득하니, 이것이 둘째 해탈이다. ㉢수혜(修慧)는 여섯 가지 관(觀)이 갖추어져 색계(色界)의 오음(五陰)이 공하게 되니, 이것이 셋째 해탈이다. ㉣사공(四空)의 오음(五陰)과 멸정관(滅正觀)을 모두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나머지의) 다섯 가지 해탈이라고 하니, 상(相)이 같기 때문이다.<sup>20)</sup>

인용문은 경에 나온 ‘세 가지 해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효가 인용한 『본업경(本業經)』 「십주품(十住品)」의 내용이다. 원효에 의하면, 『금강삼매경』에서 ‘세 가지 해탈’이라고 말한 것은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라는 세 가지 지혜가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 정혜탈, 공처해탈, 식처해탈, 무소유처해탈, 비상처해탈, 멸진해탈 등 여덟 가지 해탈

20)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1013중), “佛子 六爲諸佛所護 所謂八解脫觀 聞慧得內假外假二相不可得故 一解脫 思慧 內五法外一切法不可得故 二解脫 修慧 六觀具足色界五陰空 三解脫 四空五陰及滅定觀皆不可得故 五解脫如相故.”

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1)</sup>

원효는,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인공(人空)’과 ‘법공(法空)’을 증득하여 나아가는 수행과정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는 인(人)과 법(法)이 모두 공(空)함을 관찰하여, 인집(人執)과 법집(法執)이라는 집착을 떠나고 상응박(相應縛)과 능연박(能緣縛)이라는 결박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한다는 것이다.<sup>22)</sup>

첫째 해탈은, 안으로 색 등의 오음법의 상을 두고서 안의 아(我)가 공함을 관찰하고, 밖으로 색 등을 두고서 중생이 공함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문혜(聞慧)’로 증득하기 때문에, 인용문 ㉑와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색 등을 버리지 않고서 공을 관찰하는 것이 마치 허공이 색상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때문에 이것을 ‘허공해탈(虛空解脫)’이라고 한다고 설명한다.<sup>23)</sup>

둘째 해탈은, 안으로 색 등의 오음법의 상을 버리고 밖으로 일체의 산과 강 등이 공적하여 육계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사혜(思慧)’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문 ㉒와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팎의 모든 법을 추구하여 깨뜨리는 것이 마치 금강이 모든 색법을 깨뜨리는 것과 같아서 ‘금강해탈(金剛解脫)’이라고 한다고 말한다.<sup>24)</sup>

셋째 해탈은, 나머지 여섯 해탈을 한꺼번에 말한 것인데, 이것은 주관

21) 『金剛三昧經論』, 앞의 책, 646상, “初答中 言三解脫者 則是三慧 攝八解脫 故名解脫.”

22) 위의 책, 646중, “如是三慧觀人法空 伏離二執 現行二縛 故名解脫 既遣內外一切假法 能遮諸境天風吹鼓也.”

23) 위의 책, 646상-중, “初解脫者 內有色相外觀色等 謂內存色等 五陰法相 觀內我空 外存色等 觀衆生空 是空易入 聞慧所得故 言聞慧得 內假外假二相不可得故 不遣色等 以觀空故 有似虛空 不遣色相故 說是爲虛空解脫.”

24) 위의 책, 646중, “第二解脫者 內無色相外觀色等內遣色等 五陰法相 外觀一切山河等空 欲界諸法 無所不空 是空難解思慧所觀 故言思慧 內五陰法 外一切法 不可得故 推求析破內外諸法如似金剛 破諸色法 是故名爲金剛解脫.”

(住觀), 행관(行觀), 향관(向觀), 지관(地觀), 무상관(無相觀), 일체종지관(一切種智觀)과 같은 ‘수혜(修慧)’의 여섯 가지 관으로 세계의 모든 법이 공함을 관찰하는 것이다.<sup>25)</sup> 그리하여, 인용문 ㉔와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여섯 가지 해탈은 모두 수혜로서 여섯 가지 관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야해탈(般若解脫)’이라고 한다.<sup>26)</sup>

만약 나머지 여섯 가지 해탈을 추가로 열거한다면, 셋째 해탈은 색계의 오음이 깨끗하고 적정함을 몸소 증득하여 모두 공함을 관찰하는 정해탈(淨解脫)이라고 한다. 또한, 넷째 공처해탈, 다섯째 식처해탈, 여섯째 무소유처해탈, 일곱째 비상처해탈, 여덟째 멸진해탈은 각각 무색계의 4처과 멸정법에서 공을 관찰하기 때문에, 인용문 ㉕와 같이 말하였다고 설명한다.<sup>27)</sup>

생각건대, ‘존삼해탈’에서 말하는 ‘삼해탈’이란 ‘세 가지 지혜를 닦아서 세 가지 해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혜(聞慧)’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허공해탈’을 얻은 뒤, ‘사혜(思慧)’에 의해서 이왕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되새겨서 ‘금강해탈’을 이룬다. 그런 뒤, ‘수혜(修慧)’에 의해서 선정에 들어서 진리 자체를 몸으로 체득하여 ‘반야해탈’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25) 수혜의 여섯 가지 관 중에서, 첫째 주관(住觀)은 보살이 십주위 중에서 공관(空觀)을 닦는 것을 말하고, 둘째 행관(行觀)은 십행위 중에서 가관(假觀)을 닦는 것을 말하며, 셋째 향관(向觀)은 십회향위 중에서 중관(中觀)을 닦는 것을 말하고, 넷째 지관(地觀)은 십지위 중에서 보살이 중관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내어 그 자리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섯째 무상관(無相觀)은 등각위 중에서 중관을 닦아서 번뇌의 성품이 원래 공한 것임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고, 여섯째 일체종지관(一切種智觀)은 묘각위 중에서 부처님의 중도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菩薩瓔珞本業經』 참고.

26) 『金剛三昧經論』, 위의 책, 646중, “後六解脫 皆是修慧 觀上二界一切法空故 言修慧六觀 皆是修慧依定所發 是故總名般若解脫.”

27) 위의 책, 646중, “於中六種差別相者 第三名淨解脫身作證 色界五陰 光潔寂靜 觀悉空 故名淨解脫 自內所證 名身作證故 言具足色界五陰空三解脫 第四名空處解脫 觀空處五陰空故 乃至非想解脫亦爾 觀滅定法亦不可得 故名滅盡解脫 皆從所遣 以立其名 故言四空五陰及滅定觀 皆不可得故 五解脫如相故.”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삼해탈’의 용(用)인 ‘간직한다[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강삼매경』의 제5대화에서 대력보살은,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存用]이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서는, “마음과 현상[事]이 둘이 아닌 것을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한다”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원효는 다음과 같이 ‘간직한다[存]’의 뛰어난 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① 만약 사람이 아직 존삼(存三)의 작용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여 공(空)을 관한다 할지라도 현상[事]에 관여하게 되면 생각을 잃어버린다. 아(我)와 아소(我所)를 취하고 따르거나 거역하는 경계에 집착하며 하늘의 바람[天風]에 움직이게 되어, 마음과 현상이 각각 다르게 된다.
- ② 그러나 만일 세 가지 해탈[三解脫]을 익숙하게 잘 닦으면, 관행에서 나와 현상에 관여하더라도 관행의 힘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나다 남이다 하는 상(相)을 취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함께 잊어서, 마음과 현상이 다르지 않게 된다. 이를 일컬어 존삼(存三)의 작용이라고 한다.<sup>28)</sup>

인용문에서, 원효는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①에서는 ‘존삼의 작용을 얻지 못하면’, 현상에 관여하게 되는 순간 아(我)와 아소(我所)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마음과 현상이 다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②에서는, ‘존삼의 작용을 얻으면’, 현상에 관여하는 순간에도 나다 남이다 하는 상(相)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마음과 현상이 다르지 않게 된다’고 해석한다.

생각건대, 존삼의 작용은 선정에서 나와서 세상일을 마주 대했을 때

28) 위의 책, 646하, “若人未得存三之用 靜心觀空 涉事失念 取我我所 竭違順境 天風所動 心事各異 若能熟修三解脫者 出觀涉事 觀勢猶存 不取我他之相 不竭好惡之境 由是不爲天風所鼓 入出同忘 心事不二 如是乃名存三之用也.”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홀로 선정에 들어 있을 때는 분별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과 만나고 세상일을 처리할 때면, 곧 나와 남을 실제로 분별하고, 좋고 나쁨에 집착하며, 세상사 부침에 따라 마음도 덩달아 동요해 버리기 쉽다. 오직 ‘존삼해탈’을 굳건히 수행한 자만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2. 수일심여(守一心如)

‘수일심여’는 ‘수일’을 갖추어서 한 말이다. 이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금강삼매경』에서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금강삼매경』 제2대화에서 대력보살이 입실제의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한 가지를 지키는 것[守一]’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제3대화에서는 그 수일의 의미를 묻는 대력보살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한 마음의 진여를 지키는 것[守一心如]’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처럼, ‘존삼’이나 ‘입여래선’과 달리, 『금강삼매경』에서는 ‘수일’에 대해서 그 ‘체(體)’의 측면인 ‘한 마음의 진여[一心如]’에 대해서나, 그 ‘용(用)’의 측면인 ‘지키대[守]’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없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때에,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간략하나마 그 내용을 풀이해 주고 있어서 우리의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있다.

‘한 마음의 진여[一心如]’를 지킨다고 한 것은, 일심법 가운데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 ‘심진여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명(無明)은 바로 한 마음의 진여를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 큰 용과 같은 이러한 무명의 세력을 조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sup>29)</sup>

인용문에서, 원효는 수일의 ‘체(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수일의

29) 위의 책, 645하, “守一心如者 一心法中 有二種門 今先守其心眞如門 爲伏無明大龍勢故 無明正迷一心如故.”

체는 ‘한 마음의 진여[守一心如]’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심법의 두 가지 문인 심생멸문과 심진여문 중에서 바로 ‘심진여문(心眞如門)’을 가리킨다고 원효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명이 심진여문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무명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일심여’의 수행을 한다고 그 이유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원효는 지금 『금강삼매경』에 등장하는 존삼, 수일, 입여래선이라는 3가지 수행방법을 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일심이문(一心二門)이라는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즉, 원효는 수행자들이 마음을 닦는데 있어서 그 마음을 2부분으로 나눈 뒤에, 진여문의 측면을 닦는 것을 ‘수일’에 배당하고 있고, 생멸문의 측면을 닦는 것을 ‘존삼’과 ‘입여래선’에 배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일심여’의 용(用)인 ‘지킨대[守]’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먼저 그 ‘지킨대[守]’는 말의 의미를 간략하게 풀이해 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의 좀더 깊은 의미와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전상의 출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업경』에 나오는 십행의 지위를 설명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 ① 이 가운데 ‘지킨대[守]’고 한 것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는 한 마음의 진여한 경지를 고요히 지키고, 선정에서 나와 있을 때에는 일미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지킨대[守一]’고 한 것이다.
- ② 이것은 『본업경』에서 십행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열째는 자재하게 큰 범륜을 굴리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보살의 삼보(三寶)이다. 보살이 이때에 제일중도의 지혜를 각보(覺寶)로 삼고, 일체법이 무생이면서 움직이는 것이 곧 범보(法寶)가 되고, 육도에 항상 다니면서 육도의 중생과 화합하는 것이 승보(僧寶)가 되니, 모든 중생을 변화시켜서 부처라고 하는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삼시에 중도의 일미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이 관행에서 말하는 하나를 지키는 작용이다.<sup>30)</sup>

인용문의 ①에서는, ‘지킨다[守]’는 말의 의미를 선정에 들어있을 때와 선정에서 나왔을 때를 구분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수행자가 만약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는 ‘수행자가 감지한 심진여문(心眞如門)의 경지를 고요히 지킨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수행자가 선정에 나올 때에도 여전히 ‘그 심진여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다.

또한, ②에서는, ‘삼보’라는 기준에 맞추어 보살이 자유자재로 법륜을 굴리는 것을 설법하고 있는 『본업경(本業經)』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삼보 중에서 제일중도의 지혜를 말하는 각보(佛寶)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중도(中道)라고 하는 한 맛[一味]을 잃지 않고 항상 어느 때에나 지켜 나아가는 것이 ‘지킨다[守]’는 말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

생각건대, ‘수일’의 용(用)인 ‘지킨다[守]’는 것은, 그 체(體)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 수행자가 수일의 체인 ‘심진여문’ 혹은 ‘중도(中道)’를 가슴에 담아두는 것을 바로 ‘지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담아두는 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어느 일정한 시간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지킨다’고 하려면,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나 혹은 선정에서 나올 때에도 늘 담아두어야 한다.

### 3. 입여래선(入如來禪)

『금강삼매경』에서는 실제에 들어가는 3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입여래선’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존삼’의 경우와 같이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즉, 제4대화에서는 ‘체(體)’의 측면에서 입

30) 위의 책, 645하, “此中守者 入時靜守一如之境出時不失一味之心 故言守一 如來業經大行中言 十爲自在轉大法輪故 所謂菩薩三寶 菩薩爾時 於第一中道智 爲覺寶 一切法無生動與則 爲法寶 常行六道 與六道衆生和合 名僧寶 轉一切衆生 流入佛海故 案云 三時不失中道一味 卽是此觀守一之用.”

여래선의 ‘이치로 관찰하는 삼매[理觀三昧]’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제5 대화에서는 ‘용(用)’의 측면에서 입여래선의 ‘관찰한다[觀]’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제4대화 중에서 ‘입여래선’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보자. 대력보살은 부처님에게, “이치로 관찰하는 삼매[理觀三昧]는 어떤 법으로부터 들어갑니까[從何法入?]”라고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치로 관찰하는 마음은[理觀心者] 그 마음이 진여와 같이 맑아서[心如理淨]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無可不心]”고 대답하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관(理觀) 가운데 ‘마음이 진여와 같이 맑아서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진여의 무상(無相)을 따라서 마음에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sup>31)</sup>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이 이례적으로 매우 간단하여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한 원효의 메시지는, ‘진리[眞如]는 형상이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분별심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없다[無可不心]’는 것이다. 이것이 입여래선의 체(體)인 ‘(이관)삼매’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본경의 「무상법품(無相法品)」에서 ‘진리는 형상이 없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본경의 「무생행품(無生行品)」에서는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입실제품」에 와서 입여래선(入如來禪), 즉 ‘이관삼매’라는 수행방법이 등장한 것은, 수행자로 하여금 무상(無相)한 법과 무생(無生)한 행을 얻는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1) 위의 책, 646중, “理觀中言 心如理淨無可不心者 順理無相 心無分別故.”

다음, 제5대화에서 입여래선의 ‘관찰한다[觀]’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보자. 대력보살이, “무엇을 관찰한다고 합니까?”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안의 행위와 밖의 행위에 출입하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의 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득실이 없다.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경지에서 맑은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고 한다”고 대답하셨다. 이 중, 먼저 ㉠부분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들어보자.

① ‘안의 행위[內行]’라고 하는 것은 관(觀)에 들어가 공적하게 비추는 행위를 말하고, ‘밖의 행위[外行]’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나와 중생을 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중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② 이것은 『본업경』에서 십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열째는 자재한 지혜로써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니, 이른바 중도제일의제이다. 반야로써 중도에 처하여 일체의 법이 둘이 없음을 관찰하여 깨달은 것이다. 그 지혜가 점차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사한 제일의제의 관행이라고 하니, 참된 중도제일의제의 관행은 아니다”라고 하고, 내지 널리 설명한 것과 같다.<sup>32)</sup>

인용문의 ①에서, 안의 행위와 밖의 행위의 뜻을 밝히고, 양 행위가 어찌하여 다르지 않은지 이유를 설명한다. 즉, ‘안의 행위’란 선정에 들어가서 모든 법의 참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고, ‘밖의 행위’란 선정에서 나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수행자는 자신은 깨달은 ‘중도’의 진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기에 선정에 들어가거나 나오더라도 안팎의 행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인용문 ②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전상의 근

32) 위의 책, 646하, “內行者 入觀寂照行 外行者 出觀化物行 若出若入 不失中道 故言不二 如本業經十向中言 十以自在慧化一切衆生 所謂中道第一義諦 般若處中而觀 達一切法而無二 其慧轉轉入聖地 故名相似第一義諦觀而非眞中道第一義諦觀 乃至廣說故.”

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업경』의 ‘십회향’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혜로써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중도제일의제의 관행과 비슷한 ‘상사제일의제관(相似第一義諦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반야로써 중도에 이르러 일체의 법이 둘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다음, ⑥부분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들어보자.

①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것이 ‘이제관(二諦觀)’이기 때문이고, ‘마음에 얻고 잃음이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이 ‘평등관(平等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 경에서, “세 가지 관행이란, 가명으로부터 공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관’이라고 하고, 공으로부터 가명에 들어가는 것을 ‘평등관’이라고 하니, 이 두 가지 관행은 방편도이고, 이 두 가지 공관으로 인하여 중도제일의제관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를 쌓으로 비추어 마음과 마음이 적멸하여 초지 법의 흐르는 물에 들어간다”고 하고, 내지 널리 설명한 것과 같다.

② 생각건대, 이 가운데 ‘이제관’이라고 한 것은 속제를 버리고 진제를 관찰하는 것이니, 곧 정체의 방편이고, ‘평등관’이라고 한 것은 진제를 융합하여 속제를 관찰하는 것이니, 곧 후득지의 방편이다. 세속이 환화(幻化)와 같음을 관찰하여 얻음과 잃음을 취하지 않고, 옳다고 함도 없고 그르다고 함도 없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였다.<sup>33)</sup>

인용문의 ①에서, 원효는 『본업경』 「현성학관품」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제관’과 ‘평등관’이라는 소위 ‘출입관(出入觀)’을 제시하고 있다. 경에서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제관’인데, 이것은 가명으로부터 공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에서 ‘마음에 얻고 잃음이 없다’

33) 위의 책, 646하-647상, “不住一相者 二諦觀故 心無得失者 平等觀故 依此二種方便觀故 進入初地法流水中 故言一不一地淨心流入 如彼經 言三觀者 從假入空 名二諦觀 從空入假 名平等觀 是二觀方便道 因是二空觀 得入中道第一義諦觀 雙照二諦心心寂滅 進入初地法流水中 乃至廣說 案云 此中二諦觀者 遣俗觀眞故 卽是正體智之方便 平等觀者 融眞觀俗 卽是後得智之方便 觀俗如幻不取得失 無適無莫 故名平等。”

고 한 것은 ‘평등관’인데, 이것은 공으로부터 가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해 준다.

또한, 인용문 ②에서는, 소위 ‘출입관’에 대한 원효의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관’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불이의 중도를 관조하는 무분별지(無分別智)로서 정체지(正體智)를 얻는 수행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평등관’은 그 무분별지를 얻은 후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다시 속세의 차별을 관조하는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로서 후득지(後得智)를 얻는 수행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원효의 ‘출입관(出入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유는 중국불교사상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삼론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랑(法朗, 507-581)은 출입관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정관에서 운행하는 것을 입관(入觀)이라고 하고, 잠시라도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을 출관(出觀)이라고 하니, 단견과 상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출관이고 정관은 입관이다”고 하였다.<sup>34)</sup>

법랑 당시에 성실론사들은 공에서 가명으로 나오는 출관을 이제관이라고 하고 가명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입관을 평등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업경』의 내용과는 정 반대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법랑은 이제와 중도는 상호의존적인 ‘상즉(相卽)’ 관계로서 반드시 다른 한쪽을 동반하고 둘 간에 어떠한 본질적 구분도 가능하지 않기에 출입의 어느 방향에서도 이제관과 평등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sup>35)</sup>

법랑의 제자인 길장(吉藏, 549~623)은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일반적

34) 『二諦義』(大正藏45, 110중), “大師云, 心常在正觀中行名爲入, 纔生心動念卽名爲出, 起斷常心爲出, 在正觀爲入也”. 이것은 법랑의 제자인 길장이 전하는 말이다. 한편, 법랑의 또 다른 제자인 혜균(慧均)은 말하기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도를 바르게 관조하면 입관이고, 단상심에 머물러서 관조하지 못하면 출관이라고 한다”고 정의하였는데,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大乘四論玄義記』(續藏經46, 584중), “問 若眞俗無二體者 寧得出入觀耶 答 我正觀非有非無道者 則名入觀 若在斷常心不作觀者 名出觀.”

35) 조운경, 「법랑(法朗)의 ‘상즉(相卽)’ 개념」, 『불교학연구』 50호, 불교학연구회, 2017, pp.163-166.

으로 출입관은 병관(並觀)보다 낮은 경지로 여겨지는데, 그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출입관과 관련된 병관을 말한 것이다.<sup>36)</sup> 그가 말한 횡론병관(橫論並觀)은 유와 무를 함께 관조하는 것이고,<sup>37)</sup> 횡수병관(橫豎並觀)은 이제와 중도를 함께 관조하는 것이며,<sup>38)</sup> 득실병관(得失並觀)은 깨달음과 미혹을 함께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sup>39)</sup>

한편, 길장과 동시대를 살았던 천태학의 지의(智顛; 538~597)도 출입관을 논하였다. 그는 『본업경』의 경문에 근거하여 공·가·중의 3단계 관법을 말하였는데, 첫째는 이제관 수행이고,<sup>40)</sup> 둘째는 평등관 수행이며,<sup>41)</sup> 셋째는 중도제일의제관 수행이다.<sup>42)</sup> 이때, 이제관과 평등관은 출입관으로서 방편도이고, 중도제일의제관은 병관으로서 궁극적인 경지라고 한다. 원효는 아마도 이러한 사상적 영향 위에서 그러한 해석을 하였을 것이다. 이제, 끝으로, ㉔부분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들어보자.

36) 조운경, 「원효와 길장의 만남과 대화 -『금강삼매경론』의 출입관과 삼론종의 출입관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하여-」, 『분황 원효와 불교사상가들의 만남과 대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제9차 학술대회 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제18차 집중세미나 자료집, 2017, pp.30-33.

37) 『二諦義』, 앞의 책, 110중, “如前所說 假說有 非有爲有 假說無 非無爲無 非有爲有 指無爲有 非無爲無 指有爲無 指無爲有 照有卽照無 指有爲無 照無卽照有 詔此爲並觀也.”

38) 위의 책, 110하, “二不二 不二二 只二卽不二 只不二卽二 無二異不二 無不二異二 故不壞假名 說諸法實相 不動等覺 建立諸法 若二異不二 則壞假名說實相 不壞假名說實相 故二卽不二 所以二不二橫豎並也.”

39) 위의 책, 110하, “有所得斷常衆生 行有所得法 無所得諸佛菩薩 常行無所得法 此卽得無得各路 凡聖兩隔 感應不交 理外云何得成理內 理內云何得化理外耶 今明不然 菩薩常照無得 照有得 道未曾得無得 於衆生有得 於諸佛菩薩無得 今還照衆生有所得 照菩薩無得 此二觀常照 無有一念不照時 若使一念不照有得衆生 諸佛卽有漏機之失 衆生機發 卽便不覺 爲是故所以常照有得衆生.”

40) 『觀無量壽佛經疏』(大正藏37, 187하), “今欲去俗歸眞故 言從假入空觀 假是入空之詮 先須觀假 知假虛妄 而得會眞 故言二諦觀” 此觀若成 卽證一切智也.”

41) 『維摩經玄疏』(大正藏38, 525중-하), “次釋從空入假觀者 若不住空 還入幻化 假名世諦 分別無滯 卽是從空入假觀也.”

42) 『摩訶止觀』(大正藏46, 24하), “中道第一義觀者 前觀假空是空生死 後觀空空是空涅槃 雙遮二邊 是名二空觀 爲方便道 得會中道.”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경지[一不一地]’라고 한 것은 초지의 다른 명칭이라고 한다. 그 까닭은 초지가 곧 십지이므로, 일시에 십중 법계에 대변 들어가기 때문이고, 십지가 곧 초지니, 곧바로 편만함으로써 초문에 들어감을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십지가 곧 초지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였고, 초지가 곧 십지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리므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경지’라고 하였다. 두 가지 방편에 의하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경지에 흘러 들어가니, 그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흘러 들어간다’고 하였다.<sup>43)</sup>

인용문에서, 원효는 입여래선이 완성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십회향위에서 이제관과 평등관이라는 방편관을 수행한 결과 십지의 초지에서 마침내 ‘입여래선’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경전에 나온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경지[一不一地]’는 십지의 제1지인 초지를 말한다고 설명해주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여래선이 이루어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 부분에 대한 원효의 설명은 십지의 초지에 이르러 입여래선의 수행이 완성된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본업경』에서, “초지보살이 유와 무의 두 변을 평등하게 쌓으로 관조한다.”는 표현과 일치하고 있다.<sup>44)</sup> 또한, 이것은 길장의 교설에 의하면 병관, 특히 횡수병관(橫豎並觀)에 해당하고, 지의의 교설에 의하면 중도제일의제관 수행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3) 『金剛三昧經論』, 앞의 책, 647상, “言一不一地者 初地之異名 所以然者 初地即是十地 一時頓入十重法界故 十地即是初地 直以遍滿爲初門入故 良由十地即初地 故名一 初地即十地 故不一 是故名爲一不一地 依二方便 以淨其心 由是流入一不一地 以之故 言淨心流入.”

44) 『菩薩瓔珞本業經』, 앞의 책, 1017, “佛子 捨凡夫行生在佛家 紹菩薩位入聖衆中 四魔不到 有無二邊 平等雙照 大信始滿 習學無生 中道第一義諦觀 上至二地三地 乃至十一地 明觀法門 心心寂滅 法流水中 一相無相 二身無方 通同佛土故 名歡喜地.”

이상, 입여래선의 ‘용(用)’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하다[觀]’가 무엇인지 살펴해보았다. 요컨대,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서 ‘중도(中道)’를 깊이 관찰하다가, 선정에서 나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도중에도 그 중도를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다시 선정에 들어가더라도 그 중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십회향에서 진행되는 데, 초지에 이르러 완성된다.

#### IV. 결어

지금까지 『금강삼매경』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인 ‘존삼수일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존삼수일설은 ‘존삼해탈’, ‘수일심여’, ‘입여래선’의 3가지 수행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입(理入)이라고 하는 『금강삼매경』의 독특한 수행단계에 해당되는데, 존삼해탈은 십신에서 십주까지, 수일심여는 십행에, 입여래선은 십회향에 각각 배당되는 정교한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존삼해탈’의 체(體)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해탈[三解脫]’이란, 세 가지 지혜를 닦아서 세 가지 해탈을 이루는 것이다. 즉,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문혜(聞慧)’를 닦아서 ‘허공해탈’을 얻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되새기는 ‘사혜(思慧)’를 닦아서 ‘금강해탈’을 이루며,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수혜(修慧)’를 닦아서 ‘반야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존삼해탈’의 용(用)이라고 할 수 있는 ‘간직한다[存]’란, 선정에서 나와서 세상일을 마주 대했을 때에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즉, 누구나 홀로 선정에 들어 있을 때는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과 만나고 세상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남을 분별하고 좋고 나쁨에 집착하며 마음이 동요하기 쉽다. 이러한 때에, 선정에서 닦은 그 마

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일심여’의 체(體)라고 할 수 있는 ‘한 마음의 진여[一心如]’란 일심법의 2가지 법 중에서 심진여문을 가리킨다. 대승기신론의 핵심가르침은 바로 일심이문인데, 이는 중생들의 마음[一心]에는 유무, 선악, 등과 같은 현상적인 측면 [心生滅門]과 분별을 초월한 중도와 같은 본질적인 측면[心眞如門]이 있다. 이 중에서 ‘일심여’는 심진여문에 해당한다고 원효는 설명하였다.

또한, ‘수일심여’의 용(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킨대[守]’란 수일심여의 체인 ‘심진여문’ 혹은 ‘중도(中道)’를 가슴에 담아두는 것을 말한다. 만약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으면 그가 감지한 심진여문의 경지를 고요히 지키고, 만약 선정에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 심진여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도(中道)라고 하는 한 맛[一味]을 잃지 않고 항상 어느 때에나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입여래선’ 혹은 ‘이관삼매’의 체(體)라고 할 수 있는 ‘여래선(如來禪)’ 혹은 ‘삼매(三昧)’란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는 상태이다. 진리(眞如)는 형상이 없다[無相]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진리에 영향을 받아서 수행자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無生] 그리하여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바로 ‘여래선(如來禪)’ 혹은 ‘삼매(三昧)’의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입여래선’ 혹은 ‘이관삼매’의 용(用)이라고 할 수 있는 ‘관(觀)’이란 선정 안에서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관조하고 선정 밖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觀)’이란, 선정에 들어가 진제를 관찰하여 참모습을 관조하더라도 중도라는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고, 선정 밖으로 나와 속제를 관찰하여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얻거나 잃음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

## 참고문헌

- 『金剛三昧經』(大正藏9),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觀無量壽佛經疏』(大正藏37), 『維摩經玄疏』(大正藏38),  
『二諦義』(大正藏45), 『摩訶止觀』(大正藏46),  
『大乘四論玄義記』(續藏經46), 『金剛三昧經論』(韓佛全1)
- 김영태,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 2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8.
- 김진무, 「道信禪師의 禪思想과 그 意義」, 『불교학보』 4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5.
- 남동신, 「新羅 中代佛敎의 성립에 관한 연구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2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 박성배, 『몸과 몸짓의 논리』, 서울: 민음사, 2007.
- 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4.
- 석길암, 「『금강삼매경』의 성립과 성립과 유통에 한 재고」, 『보조사상』 31집, 2009.
- 이병학,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 서울: 혜안, 2017.
- 이정희, 「원효의 실천수행관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조윤경, 「법랑(法朗)의 ‘상즉(相卽)’ 개념」, 『불교학연구』 50호, 불교학연구회, 2017.
- 水野弘元, 「菩提達摩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 『駒澤大學研究紀要』13, 1955.
- 木村宣彰, 「金剛三昧經の眞偽 問題」, 『佛敎史學研究』 18-2, 1976.
-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禪文化研究所, 1967.
- \_\_\_\_\_, 「金剛三昧經の研究」, 『백련불교논집』 3집, 1993.
- Buswell, Robert. E,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ādhi-Sū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89.
- Walter, Liebenthal, “Notes on the ‘Vajrasamādhi’”, *Toung Pao* Vol. 42, 1956.

Abstract

The Theory of Preserving the Three and Guarding the One in  
*Vājrasamādhi Sūtra*

Kim, Yeong-il  
(Lecturer,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on the theory of preserving the three and guarding the one in *Vājrasamādhi Sūtra*. The theory consists of three practices: preserving the three liberations, guarding the one mind of suchness, and accessing the tathāgathadhyaṇa. The stages of the access of principle, which is shown in *Vājrasamādhi Sūtra*,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stages of ten faiths to ten abidings in preserving the three liberations, the stages of ten practices in guarding the one mind of suchness, and the stages of ten returns in accessing the tathāgathadhyaṇa.

Firstly, the essence of the preserving three liberations is the state of accomplishing the three liberations: the liberation of space, the liberation of diamond, and the liberation of prajñā. These three liberations can be attained by cultivating the three kinds of wisdom: the wisdom of hearing, the wisdom of thinking, and the wisdom of practicing. And the function of the preserving three liberation means reserving the same mind which is practiced in the state of meditation when the practitioner comes out of the meditation and meets the people and things in the world.

Secondly, the essence of guarding the one mind of suchness is the mind of the aspect of suchness in *The Awakening of the Mahāyāna Faith* which is famous for the teaching, “One mind has two kinds of aspects: the aspect of suchness and the aspect of arising and ceasing.” And the function of guarding the one mind of suchness means keeping always the

mind of aspect of suchness or the middle way (*mādhyaṃika*) which is the essence of guarding the one mind of suchness in the state of meditation or in the middle of the world.

Thirdly, the essence of accessing the *tathāgathadhyāna* is the state of no mind of discrimination, which divides right things with wrong things and splits this things with that things, which can be seen easily in the ordinary people's mind. And the function of accessing the *tathāgathadhyāna* means activities that the practitioner don't stay in having the one mark even though finding the middle way in the state of meditation and don't gain or lose the one mark even though enlightening the ordinary people out of the meditation.

#### Keywords

*Vājrasamādhi Sūtra*, *The Treatise on Vājrasamādhi Sūtra*, Wonhyo, The Theory of Preserving the Three and Guarding the One, Preserving the Three, Preserving the Three Liberations, Guarding the One, Guarding the One Mind of Suchness, Accessing the *Tathāgathadhyāna*, Noumenal-contemplation *Samādhi*.